인싸의 시장 관찰 기록 — 2026-11-18 (수요일)

[오늘의 한 줄]

엔비디아의 깜짝 실적 하나가 코스피를 하루 만에 5,000선 위로 돌려놓았습니다. 다만 외국인은 4거래일 연속 팔았고 개인은 순매도로 돌아섰으며, 공포지수는 오히려 올랐습니다. 반등의 질은 두껍지 않습니다.

[확인된 데이터]

■ 한국 시장 (11/18 정규장 마감, 오후 3시 30분)

- 코스피 5,067.44 (+98.96, +1.99%). 하루 만에 5,000선을 탈환하며 4거래일 연속 하락을 멈췄습니다. 장 시작은 +2.62% (5,098.82)였습니다. 종가 기준 연중 고점(6/22 9,114.55) 대비 -44.4%, 하반기 고점(9/23 7,080.92) 대비 -28.4%. [계산]
- 코스닥 662.81 (+12.75, +1.96%).
- 공포지수(VKOSPI) 55.29 (+3.08%). 지수가 올랐는데도 3거래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 반도체: 삼성전자 194,700원 (+2.31%), SK하이닉스 1,144,000원 (+4.19%). 삼성전기 810,000원 (+7.43%).
- 전력기기 3종도 동반 반등: HD현대일렉트릭 382,500원 (+1.06%), 효성중공업 1,680,000원 (+2.07%), LS일렉트릭 116,000원 (+2.11%).
- 원화는 달러당 1,332.02원 (전일 1,335.67원보다 강세).

출처: 연합뉴스 마감 기사·종목 기사, Hongzi(VKOSPI), 네이버 금융
https://www.yna.co.kr/view/AKR20261118135700008
https://www.yna.co.kr/view/AKR20261118045151008
https://fear.hongzi.us/data

■ 오늘 누가 사고팔았나 (한국거래소 오후 3시 35분 집계)

- 코스피: 외국인 -3,274억원으로 4거래일 연속 매도지만, 규모는 전일(-1조4,430억원)의 4분의 1 이하로 줄었습니다. 기관은 +5,118억원으로 2일 연속 순매수 (금융투자 +3,189억원, 투신 +2,214억원, 사모 -771억원). 연기금등은 +660억원으로 매수 전환했습니다. 개인은 -6,380억원으로 매도 전환, 기타법인 +4,600억원.
- 코스닥: 외국인 -449억원, 기관 +1,766억원, 개인 -1,232억원.
- ※ 수급 수치는 집계 시각에 따라 기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위 표는 15:35 기준).

출처: 연합뉴스 투자자별 매매동향 표
https://www.yna.co.kr/view/AKR20261118135900008

■ 미국 시장 (11/17 화요일 마감)

-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둔 관망 속 혼조: 나스닥 24,328.38 (-0.74%), S&P500 7,340.53 (-1.03%), 다우 50,759.42 (-1.64%), 러셀2000 2,701.87 (-1.50%),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 9,642.88 (+0.34%).

- 엔비디아 155.46달러 (-0.44%, 실적 발표 전 마감), 팔란티어 156.56달러 (-2.39%), 아이온큐 24.84달러 (-6.09%), 아마존 257.89달러 (+0.05%), 오라클 -3.43%, 마이크론 -0.92%, 샌디스크 -1.47%, GE버노바 +2.14%.
- 미 국채 11/17 확정 (재무부): 10년물 5.10% (-2bp), 2년물 4.80%, 3개월물 4.33%, 30년물 5.46%. 10년-2년 스프레드 +0.30%p. [계산]
- 한국 국고채 3년 3.736% (+0.9bp). 일본 30년물 4.03% (11/16 확인치, 최신).
출처: 야후파이낸스, 미 재무부,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61118154500008
https://home.treasury.gov/resource-center/data-chart-center/interest-rates/TextView?type=daily_treasury_yield_curve&field_tdr_date_value=2026

■ 엔비디아 실적: 예상을 크게 웃돈 성적표 (한국시간 11/18 오전 6시 20분 발표, 콜 오전 7시)

- 회계연도 3분기(8~10월) 매출 1,158억 달러 (+103%, 직전 분기 대비 +20%). 시장 전망 1,091억 달러를 크게 웃돌았고 조정 주당순이익 2.68달러로 예상(2.47달러) 상회. 두 분기 연속 100% 이상 성장입니다.
- 데이터센터 매출 1,076억 달러 (+110%, 전체의 92.9%). 차세대 플랫폼 '베라 루빈 NVL72'의 양산·출하가 시작됐고,
구글·마이크로소프트·오라클·코어위브·네비우스에서 이미 가동 중이라고 회사는 밝혔습니다.
- 4분기 전망: 매출 1,300억 달러(±3%), 시장 예상(약 1,253억 달러) 상회. 중국향 데이터센터 연산 매출은 반영하지 않았고, 이번 분기는 통상보다 1주 깁니다. 크레스는 콘퍼런스콜에서 2028회계연도 매출 성장률 전망을 약 70%에서 약 75%로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회사 전망, CNBC·Fortune 등 보도).
- 고객사 금융 지원 (공식 분기 공시 기준): 네오클라우드 약정(종전 'AI 클라우드 계약') 잔액은 320억 달러로 전 분기 360억 달러에서 줄었습니다 (감소 원인은 공시가 밝히지 않음). 약정은 고객사가 자금을 조달하고 설비를 가동·인수해야 발효되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축소·소멸할 수 있다는 조건부 문구가 이번 공시에 실렸습니다. 크레스는 이 문구에 대해 "새로운 것인가? 아니다. 무언가 바뀌나? 아니다"라며 계약 조건 변경이 아니라 기존 조건의 설명이라고 답했습니다. 보증의 최대 노출은 총 1,180억 달러인데, 이 중 올해 8월 새로 맺은 SB에너지 캠퍼스(오픈AI 입주 예정) 보증 1,050억 달러는 건물 완공 시점별 단계 발효로 첫 발효가 2029회계연도 예정이고, 기존 네오클라우드용 35억 달러와 전력·시스템용 95억 달러는 별도 항목입니다. 회사는 "지금까지 보증 관련 지급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매출 공유 참여(일정 조건 충족 시)도 공시로 확인됐습니다. 3분기 주주환원은 281억 달러, 9월에는 1,500억 달러 자사주 매입 승인 증액이 있었습니다.
- 이사회 의장 하비 존스는 콘퍼런스콜에서 젠슨 황 전 CEO의 재선임 의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 주가는 정규장 155.46달러 마감 후 시간외에서 3% 이상 올라 미 동부 오후 4시 30분(한국시간 오전 6시 30분) 기준 161달러선에서 거래됐습니다.

출처: 연합뉴스, 이데일리(콘퍼런스콜 취재), 중앙일보
https://www.yna.co.kr/view/AKR20261118006551091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964726645647032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79677
엔비디아 3분기 CFO 코멘터리 (미 증권거래위원회 공시)
https://www.sec.gov/Archives/edgar/data/1045810/000104581026000088/q3fy27cfocommentary.htm
2028회계연도 전망 근거: CNBC 크레스 인터뷰 전문
https://pressroom.versantmedia.com/cnbc/press-releases/cnbc-exclusive-transcript-nvidia-interim-ceo-colette-kress-speaks-cnbcs-jim

■ 채권·환율·원자재

- 유가는 반락: WTI 83.94달러 (한국시간 14시 기준, 전일 마감 86.01달러 대비 -2.4%, 진행 중). 브렌트 89.98달러 (14시 기준, 진행 중).
- 금 3,765.70달러 (14시 기준, -2.6%, 진행 중).
- 미 에너지정보청 주간 소매 연료가: 항공유 갤런당 4.035달러, 경유 4.204달러 (11/11 기준, 새 주차 미게시).
출처: 연합뉴스, 네이버 금융, EIA

[복기]

어제의 판단을 실제 값과 대조합니다.
- 11/17 판단: "코스피 종가가 4,968.48 아래일 것" (T+1, 11/18 검증) → 실제 종가 5,067.44. 미적중.
- 해석: 엔비디아의 예상 밖 호실적이 4거래일 연속 이어지던 하락 기조를 하루 만에 뒤집었습니다. 누계 36건 중 21건 적중.
- 한계: 같은 흐름 안의 연속 관측이라 독립 시행이 아니고, 단순 규칙의 참고 기록일 뿐 실력의 증거는 아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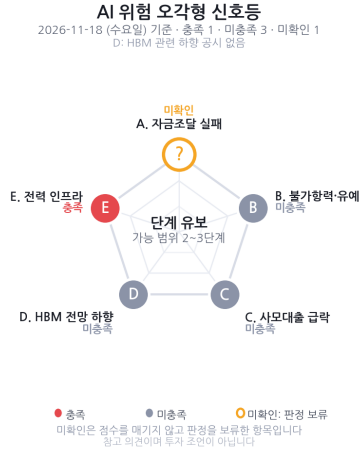
[판단]

- 최악의 시나리오 하나가 미뤄졌습니다. 엔비디아가 전망치를 크게 웃돈 실적과 상향된 4분기 가이던스를 내놓으면서 '수요 둔화 확인' 시나리오는 힘을 잃었습니다.
- 그러나 순환금융 논란이 해소된 것은 아닙니다. 공식 공시상 네오클라우드 약정 잔액은 360억 달러에서 320억 달러로 줄었고(원인 미공개), 크레스는 조건부 문구가 "바뀐 것이 아니다"라고 했지만 지원 확대 약속도 하지 않았습니다. 보증 최대 노출 1,180억 달러 중 1,050억 달러는 2029회계연도부터 단계 발효되는 신규 캠퍼스 건이라 즉시 지급을 뜻하지 않지만, 규모 자체는 시장이 계속 따져 볼 숫자입니다. 이사회가 황의 복귀 가능성을 닫으면서 지배구조는 새 국면입니다.
- 반등의 내막은 가볍습니다. 외국인은 4일 연속 매도(규모 축소), 개인은 6,380억원 순매도로 전환, 공포지수는 오히려 상승. 하루 반등으로 추세 전환을 말하기는 이릅니다.
- 오늘의 새 판단 기록: "코스피 종가가 5,067.44 아래일 것" - T+1(11/19, 목), T+5(11/25, 수)에 각각 검증합니다.

- 판단을 바꾸는 조건: (1) 앤트로픽 공모가 (한국시간 11/19 아침 예정)와 첫 거래 흥행 (11/19 밤 11시 30분 개장 후, 첫 체결 유동). (2) 10월 FOMC 의사록 (11/19 새벽 4시 공개 예정). (3) 외국인 매도 연속성과 공포지수 방향.

[AI 위험 v1]

AI 투자 열기의 균열을 미리 잡기 위해 정해 둔 다섯 가지 조건입니다.



- A. AI 기업의 자금조달 실패·철회 (최근 30일 2건 이상): 미확인 (판정 보류, 유지). 네비우스 채권 철회는 결정일이 특정되지 않아 30일 창 판정이 불가하고, 엔스케일의 상장 1개월 연기는 정의상 실패·철회와 달라 2건 충족을 검증할 수 없습니다. 사건일이 확인된 실패·철회 2건이 창 안에 쌓이면 충족으로 바로잡겠습니다.
- B. AI 인프라 금융 프로젝트의 불가항력(force majeure) 통보 또는 지급 유예: 미충족. 오늘 확인한 검색 범위 안에서는 해당 사례가 없었습니다.
- C. 사모대출 운용 3사(APO·KKR·BX) 중 2사 이상이 6개월 최고가 대비 -20% 이하: 미충족. 블랙스톤 -21.99%로 기준선 아래 1사뿐이고, 아폴로 -17.89%, KKR -18.04% (11/17 종가). [계산]
- D. 엔비디아 또는 삼성·SK의 HBM(고대역폭 메모리, AI 칩에 붙는 고성능 메모리) 실적 전망 하향: 미충족. 세 회사의 HBM 관련 공식 전망 하향은 오늘 확인한 범위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어제까지의 '미확인'에서 '미충족'으로 바로잡습니다. (엔비디아의 전사 매출 전망 상향은 HBM 전망의 직접적인 증거는 아니므로 참고로만 봅니다.)
- E. 전력 인프라 4종(GE버노바·HD현대일렉트릭·효성중공업·LS일렉트릭) 중 2종 이상이 6개월 최고가 대비 -30% 이하: 충족 (유지). GE버노바 -33.62% (11/17 종가), HD현대일렉트릭 -67.96%, 효성중공업 -58.07%, LS일렉트릭 -59.30% (한국 3종 11/18 마감). [계산]
- 종합: 확정된 충족은 E 1개('2단계' 해당). A 1개가 미확인이라 확정 단계는 유보합니다 (가능 범위 2~3단계).
- 이 표의 임계값은 미리 정해 둔 편집 기준입니다. 참고 의견이며 투자 조언이 아닙니다.